실크의 종류 (1)

실크란 누에가 토해낸 실인데, 누에란 용어의 유래는 바닥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벌레 즉 누에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실을 입으로 토해내는 벌레는 많지만,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벌레는 나비목 누에나방과에 속하는 벌레로서 크게 가잠(Domestic Silk)과 야잠(Wild Silk)으로 분류한다.

잠이란 글자 "蠶"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하늘이 내린 벌레란 뜻의 천충(天蟲) 즉 저 나름의 한자를 만들어 잠(蠶)자대신 천(蚕)자를 만들어 쓰고 있다. 이 만큼 자연이 준 대단한 선물이란 뜻이다.

우리나라 양잠의 역사에서도 설명하였듯 집안에서 인간이 따다 주는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를 가잠이라고 하는데, 가잠의 누에에서 뽑아 낸 실을 가잠사라고 하며, 그 역사는 지난번에 소개하였던 바와 같이 정말 오래 되었다.

산이나 들에서 상수리나무 잎이나 밤나무 잎 등을 먹고 자라는 누에를 야잠이라고 한다. 야잠을 '들누에' 혹은 '뫼누에'라고도 하며 여기에서 뽑아 낸 실을 야잠사라고 한다.

가잠은 한국 종을 위시하여 일본 종, 중국 종, 유럽 종 및 열대 종이 있는데, 열대 종은 별로 좋지 않고 한국 종이나 중국 종이 실도 가늘고 길다. 일본 종은 쌍고치 비율이 많고, 길이가 한국 종보다 짧다. 유럽 종은 한국 종보다 크기가 더 크며, 실의 길이도 길고, 해사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열대 종은 동남아나 인도 등의 것인데, 고온 다습한 탓인지 고치의 크기도 작고 품질도 별로 좋지 않다.

가잠 고치의 색상은 백색이 대부분이나, 한국 종이나 중국 종에는 백색 외에 황색이나 초록색 고치가 이따금 섞이며, 일본 산은 주로 백색이고, 유럽 종은 백색이나 베이지색이 섞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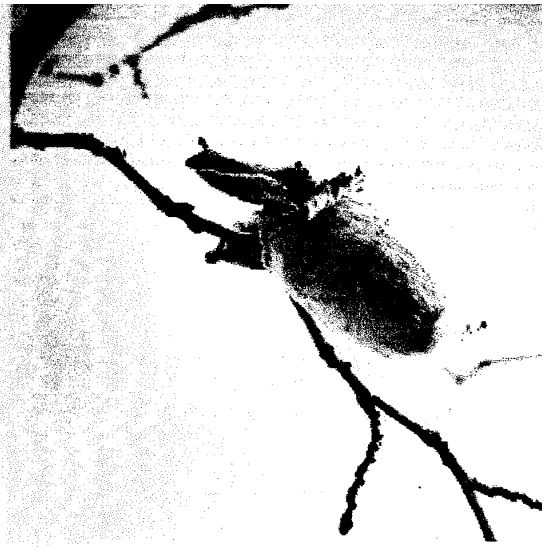
야잠은 종류가 많다. 야잠은 일반적으로 실을 토해내는 능력이나 고치의 해사가 좋지 않

으나, 가잠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인간에 의하여 실용화되었고, 요사이는 야잠을 산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두고 망을 둘러 쳐서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한 야잠의 알을 채취하여 사육시기를 조절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야잠을 사육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많이 활용되는 야잠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천잠견(天蠶絹, 天蚕)

요사이는 일본 각지에서 거의 사육하고 있다. 이 누에는 밤나무나 도토리나무(상수리나무) 같은 잡목이 많은 산에서 이런 나무 잎을 먹고 자란 다음 투명한 녹색 고치를 만든다. 이 고치의 광택은 아름다우며, 깊은 맛이 있고, 촉감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이것으로 직물을 만들어 놓으면 잘 구기지도 않고, 3대가 입어도 해지지 않는 튼튼한 제품이 된다고 하여 섬유의 다이아몬드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척 비싸다. 다만 약점으로서는 염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섬유와 교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천잠견 부분의 실은 백색으로 보여서 독특한 맛을 내기도 한다. ♣ (공석붕)

바닥에 떨어진 야잠 고치



가지에 매어 달린 야잠 고치